

# 창립 희년을 위한 영적 여정



## 둘째 단계

2022년 11월 21일 - 2024년 2월 10일



## II. 단계

### 희년: 돌아옴과 용서의 시기

2023년 2월 22일 재의 수요일- 4월 6일 성 목요일

---

스승에 의해 해방되고 치유된 제자  
속죄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레위 25,9-10).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을 모두 위로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정의의 참나무' 라 부르고,  
나는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어 주리라.  
(루카 4; 이사야 61,1-3.8 참조).

---

주님께서 택하신 고대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도 은총의 해가 선포되었으니, 고대 하느님 백성이 속죄의 날을 기념하였듯이(레위 23, 27-32 참조) 사순시기, 참회의 시기를 지내는 온교회와 함께 회심의 시기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느님의 계획에 항상 온전하게 응답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상처를 입고 수녀들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제시된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

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에 우리는 영원한 계약으로 갱신하는 부르심에 대한 밝은 의식으로, 세례(우리는 가해 축일 독서를 살고 있습니다) 때 받고, 축성을 통하여 재정의되고, 성숙하여가는 혼인 예복을 다시 찾읍시다.

우리는 사순절 여정으로 정화되고 새로워진 사람들로써, 그분의 파스카에 결합하였으니(로마서 6:5 참조), 부활하신 그분의 빛 안에서 추종하는 자로서 축성의 삶을 매일 살아가는 그분과의 혼인 관계를 이해하면서 부활하신 스승님을 관상합시다.

\* \* \*

우리 수도회의 창립은 십자가의 봉인을 수반하는 사건들이 거듭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성숙해졌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개인과 수도회의 과거로 돌아가 하느님의 충실하심과 그분의 자비 앞에 게으름이나 경쟁심 때문에 너무 자주 응답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화해·정화·용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것의 근원에는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신 하느님의 자비롭고 재생하는 행동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모든 회원을 초대합니다.

총장 마리아 미카엘라 모네티 수녀는 공문 2022년 2호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희년은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에 고마워하며 지내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다음의 시편 저자가 기도하듯이, 신명기적 기억의 시간입니다. “옛날을 회상하며 당신이 저에게 하신 모든 업적을 묵상하고 당신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되새깁니다”(시 143 참조). 또한, 우리의 죄와 인간 본성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초래하였거나 겪었던 불충실과 상응하지 못함, 분열과 상처에 대한 화해의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 신실하시다는 확신을 하고 믿음으로 앞을 내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분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로마 11, 29 참조). 복음의 여인들이 되도록 새로운 세대를 계속 부르시고, 그분과 만

남에서 변화되어 몸짓과 말로 그 첫 선포를 다시 올려 퍼지게 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로, 스승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당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날마다 여러분 곁에 사시면서 여러분을 깨우치시고 힘을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복음의 기쁨 164).

우리는 모두 우리의 역사에 각인되어 종종 우리 사이, 공동체들 안에서, 지역구 사이 그리고 바로 가족의 현재를 좌우하는 상처 입은 관계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를 개인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으로도 하느님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즉 용서의 해방과 재생의 경험, 원래의 계획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이런 의미에서 돌아감의 때입니다.

각 지역구에서는 화해의 여정 또는 예식을 준비하십시오. 이는 받은 상처와 야기된 상처에 대한 의식을 표현하고,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에게서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주고받는 용서를 통한 회복을 끌어안음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 여정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화해의 은총을 환영하고 누리는 데 도움이 되는 영적 감수성, 방법 및 상황을 고려하면서 오랜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내면화와 기도에 유용한 말씀 카리스마의 원전에서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들에게 하신 강의

여기서 천상 스승님께 그분과 비슷한 마음, 즉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던 그 마음을 갖도록 은총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이, 모두 나에게 오너라" (마태 11, 28). 그리고 사도들에게 "모든 피조물에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 15)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십시오. 이제 여기에 성 바오로의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본기도<sup>1)</sup>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성 바오로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가르치셨습니다...". 큰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에 동화된 성 바오로의 마음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역과 지역을 구별하고, 이것은 남부의 것이고, 이것은 북부의 것이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좁습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탈리아에 살면서 이런 경향이 있으면 외국에 나가 살 때 민족 주의가 더욱더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큰마음! 외국에 가면 많은 것에 순응하고 당신이 가는 지역을 사랑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져 가야 할 선을 가져가고 우리가 발견한 악은 취하지 마십시오. 언어에 적응하듯이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순응하십시오. 우리는 일본인들이 이탈리아어를 말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에 적응하십시오. 하느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내려오시어 우리와 같은 몸과 영혼을 취하셨습니다.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비슷해지셨습니다. 그러니 해외에 나가서 나쁜 점을 제외하고는 자신을 비슷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음식과 기후 및 관습, 기타 모든 것에 적응하는

---

1) 매일 미사 경본(라틴어-이탈리아어). 6월 30일 성 바오로 기념일 본기도

겁니다. 먼저 큰마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북쪽 출신, 남쪽 출신, 스페인 사람, 미국 사람 등 회원이 항상 조금씩 섞여 있는 것이 유용합니다.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회원도 지역별로 교육받으면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외에는 장상을 이탈리아 사람으로 일정 기간 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에서 온 수녀들이 제일 나은 선택을 하고, 이탈리아에서 수련하거나, 적어도 일정 기간 머물면서 묘원의 관습과 사고를 배움으로써 수도회의 일치를 보존하도록 하십시오. 이 일치는 최대의 선입니다. 일치. 하나 됨을 추구하는 사람은 수도회를 지향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조심합니다.

해외로 나가면서, 가톨릭교회의 마음을 가져가십시오. 가톨릭이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넓은 마음을 지니십시오. 그리고, 제자 수녀들은 모든 나라에서 다음의 세 가지를 갈망하십시오. 첫째, 양성소를 짓는 것. 둘째, 그 나라를 위한 전례 센터 셋째, «삶»,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의 삶<sup>2)</sup>과 같은 자체 정기 간행물 출판 가능성에 따라 한 가지는 먼저 하고, 다른 한 가지는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수도회에서 오는 모든 좋은 것을 여러 나라로 가져가십시오... 수도회를 이해하십시오. 수도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스승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분은 어떠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생각하고, 동시에 모든 사람, 모든 민족, 특히 복음의 빛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거나, 방해받든지 아니면 인도, 중국, 일반적으로 동방 민족들, 아프리카의 민족들과 같이 복음의 빛을 빈약하게 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영토가 매우 가깝지만, 가톨릭교를 받아들이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회원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지만, 파견되려면 양

---

2) 1952년부터 스승예수의 제자수녀들이 발행하는 정기 월간지.

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모든 나라에 갈 자격을 갖추도록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합당하기 위해 겸손하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소명에 대한 믿음을 지니십시오. 이 말은, 아름다운 성소가 있고 이 성소에 응답하게 하는 뛰어난 은총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 수도회의 몸 전체는 성령의 활동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대해 비열하지 말고 큰마음을 지니십시오(...) 작은 일에 비좁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넓은 정신, 큰마음뿐 아니라 적응력, 적응하는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소임, 내일은 저 소임, 한 사람이 오늘은 총장일 수 있고, 내일은 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일 수 있고, 내일은 부역에서 잡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적응력.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저항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달아버릴 만한 특별한 것이 없으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먼저 제자가 되고 우리의 인격은 그리스도 안에 녹아 내고, "그리스도 안에 녹는" 것은 수도회 안에 녹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화는 수도회 안에서 계획하여 배치되는 모든 것에 순응하는 신속함에 달려있습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은 스승 예수님의 헌신적인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과 결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과 결합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과 결합하여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감정, 당신의 열망, 당신의 미덕과 함께 진정으로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sup>3)</sup>

외적으로 보이는 기도는 통제가 쉽지만, 의식성찰은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습관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지원기나 수련기, 유기서원 기간에만 임시 방편으로 하지 말고 의식 성찰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

3)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들에게 1957,159-162.



수행 (의식성찰, 묵상, 조배)이 부족할 때, 마치 영성체를 간절히 바라는데 제재받는 것처럼,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아프게 느끼고, 그날이 좀 공허한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를 느끼고, 그것에 도달하고, 계속 더하고, 이러한 훈련의 맛을 느끼고, 마음의 위로와 만족을 느끼십시오. 노력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집중하여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가고, 하느님과 더 친밀하게 소통하려는 노력 그 자체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첫째: 양심 성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양심 성찰은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분께 가는 존재라는 우리의 위치를 자각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며 삶의 유일한 소망은 최고의 선이시며 영원한 행복이신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녀로서의 본분은 공동체 안에서 책임자에 대한 의무, 평등한 자매에 대한 의무, 아랫사람에 대한 의무를 기억시켜줍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수도회에 친밀감을 느낍니까? 수도회의 생각, 계획, 열망, 정신, 사도직에 친밀감을 느낍니까?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 자신의 신분을 - 각자 성찰해야 합니다 -. 그리고 나는 자매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품행이 좋습니까? 나에게 달린 일일 때 좋은 표양을 줍니까? 수도회 안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장을 검토하십시오. 나는 소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내 마음을 쏟는지? 어떻게 내 마음을 담을까? 나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는가? 건강 상태에 따라? 나는 수도회에 이바지하고 있는가? 사회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공동선을 위한 것이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수도회를 통해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더는 자신을 성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의

길에서 눈이 멀게 되며, 때로는 접촉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눈먼 인도자들이 됩니다. 양심 성찰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 그들의 결함을 조사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결함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 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자신이 위대하다고 믿고, 기도할 때 진정으로 필요한 은총을 청하지 않으며, 따라서 순종은 더 어렵고, 사랑도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양심성찰의 훈련은 첫째, 받은 은총을 생각하고 둘째, 상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찰의 첫 번째 사항은, 항상 받은 은총에 대한 것인데, 이는 은총에 비례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가지지 않은 것은 하느님께 드릴 수도 없고 주님께서는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40살까지 살고 또 어떤 사람은 5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40살에 영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께 40년 동안 것만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50살에 영원으로 가는 사람은 10년을 더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더 똑똑한 사람, 영감을 더 많이 받은 사람, 더 깊은 성화에 초대되었음을 느끼는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런 다음 받은 은총에 상응하였는지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어, 건강을 온전히 다 바치고, 주님을 위해 지성을 다 바치고, 배운 것, 공부한 모든 것을 수도회와 사도직의 유익함을 위해 다 쏟으려 노력하는지 성찰하십시오.

또한, 양심 성찰에서, 항상 우리 결점의 원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많은 경우에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과 친밀할 자격이 없게 되고, 따라서 그 친밀함을 박탈당합니다. 많은 경우 미지근함, 무관심으로 나타나는 약간의 게으름일 수 있는데, 그것은 심지어 기도, 특히 다른 것들과 관련된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기심이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고통스러운 질투입니다. 그런 다음 시기심이 생기면 생각과 감정, 심지어 삶까지도 압도합니

다. 카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양심을 성찰할 때 항상 내면을 먼저 성찰하십시오. 즉 생각과 느낌을 성찰하고 그다음에 말과 행동을 성찰하십시오. 말과 행동은 결과가 되겠지만, 뿌리는 항상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여러 번 반복되었던 것을 주목하십시오. 양심 성찰을 할 때 우리는 심판 받으러 하느님의 법정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심판받은 자로서 자신을 알기 위하여 빛과 은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미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행동 방식을 이미 판단했으며 악이 근절되도록 용서를 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판단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찰은 우리가 죽은 후에 정확한 심문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잘해야 하는데, 그것은 행한 선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행한 악을 드러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또한 제가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바오로의 말씀대로 "그대 자신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1티모 4,16).<sup>4)</sup>

## 뿌리에서 본 나무<sup>5)</sup>

그의(티모테오 자카르도 신부) 수첩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알바, 1947년 4월 3일

오늘, 성 목요일에, 성체성사와 사제직과 전례가 탄생한 이 날에 예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제도적, 영적, 신비적인 이러한 탄생일에, 제가 성 요셉이 하였듯이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들을 동정녀인 교회에서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천생 스승을 향한 믿음을 통해 성체성사와 사제직과 전례를 담당하는 수녀들이 되고, 새롭고

4) APD 1959,27-28.

5) 레지나 체사라또- 젤마 오베르토, 뿌리에서 본 나무<sup>2</sup>, PDDM, Roma 2000 비매품, p. 179.

충만하고 고유한 생활을 하도록 당신 사랑에서, 당신 사랑 안에서,  
당신 사랑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멘!

## 생명의 규칙에서

43.

바오로인의 양성 과정은 지속적인 회심의 여정이다. 공동생활을 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능력을 갖추며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성화를 목표로 한다.

사도들의 모후 마리아와 사도 성 바오로,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 마드레 스콜라스티카는 이 성화와 사도직의 여정에서 우리를 인도한다.

63.

우리는 교회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매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당신의 계획을 실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아버지를 찬미한다.

이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곳이자 역사 안에 친교의 결실을 확장하는 장(場)이 된다.

65.

말씀과 성찬의 식탁 둘레에 모인 우리는 현존하시는 주님에게서 활력을 얻는다.

우리는 삶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능력을 키우고

공동책임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간다.

성체성사가 화해의 원천임을 깨달아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듯이 우리도 인내심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한다.

우리는 서로의 재능에 대하여 감사하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자매들 각자의 성장에 따르는 필요를 헤아려 존중하고, 그들이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

## 71.

하느님께서서는 부르심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수도 가정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이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를 다하도록 강력하고도 감미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셨다.

우리는 하느님께서서 우리와 맺으신 계약에 충실하고 공동선을 위해 선물로 받은 우리의 재능이 풍성한 결실을 가져올 수 있게 노력한다.

특히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자매들 가까이 있다.

영원히 성실하신 주님께 언제나 새로이 의탁할 수 있도록 신뢰와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한다.

우리는 희망 속에 기뻐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간다.

또한 봉헌 생활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한다.

134.

말씀과 성체성사로 양성된 우리는 시대의 표징에 주의를 기울여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대화에 열린 사도적 공동체를 형성한다.

우리는 길·진리·생명이신 유일한 스승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지속적인 회심의 여정을 걷는다.

##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뜻깊은 날들

1987년 3월 24일: 산프레 (이탈리아 - 쿠네오)에서  
마드레 스콜라스티카 선종<sup>6)</sup>

1924년 3월 25일: 여덟 명의 청원자들이 착복하고 창립자의 수하  
에서 사적 서약을 한다. 오르솔라는 천상 섭리의  
스콜라스티카 수녀라는 이름을 받는다.<sup>7)</sup> 그 후  
수년간 3월 25일은 수련자들의 첫 수도 서원의  
날이었다.

1947년 4월 3일: 성목요일에, 알바에서 어머니이신 교회의 교구  
승인 교령이 선포된다.<sup>8)</sup>

1884년 4월 4일: 포싸노에서 야고보 알베리오네 탄생.<sup>9)</sup>

---

6) «Roma, 1987 년 3월 25일 - 주님의 탄생 예고 대축일 - 공문 3호.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들 모두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 날의 전례를 시작할 때(제1저녁  
기도 중에), 천상 스승께서는 하늘나라 공동체를 위해 마드레 마리아 스콜라  
스티카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전구를 청하고, 창립자의 마음에서 직  
접 퍼올린(받은) 카리스마를 온전히 실천한 어머니요 자매인 그의 모범을 발견  
함으로써 우리의 애정을 표현할 것입니다». PDDM의 총문서고에 보관된 마드레  
마리아 테클라 몰리노의 공문.

7) 뿌리에서 본 나무 pp. 44-46. 참조

8) 뿌리에서 본 나무 pp. 177-180. 참조

9) 야고보 알베리오네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그리스도교의 신심이 굳고  
근면하게 노동하는 환경에서 성장하였다(cfr RV 2 참조).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총원 - Via Gabriele Rossetti, 17 - 00152 - Roma

<http://pddm.org>